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예비 CRA를 위한 '제7회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 개최

-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함께, 8월 22-23일 양일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진행
- 현업 실무자들이 직접 나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진행 관련 지식과 경험담, 네트워킹 기회 제공
- CRA를 꿈꾸는 대학(원)생 60여 명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2013년 6월 13일** -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장 마리 아르노)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함께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비 CRA를 위한 '제7회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국내 R&D 전문인력의 조기양성 및 국내 임상시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유수의 임상시험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교육과정은, 매년 간호대학, 약학대학, 보건의료대학, 수의학, 의과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40명을 선발·교육하여, 현재까지 300명에 가까운 수료자를 배출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 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참가자 수를 6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본 과정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CRA(임상시험 담당자, Clinical Research Associate) 양성 과정으로서, 국내 임상연구 현황과 관련 법규를 비롯해,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R&D, CSU(임상연구부, Clinical Study Unit), 의학부를 포함한 유관 부서의 역할과 협력 사례가 생생하게 소개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는 피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관련 강연과 함께 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사노피에서 CRA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실무자와의 진로 상담 세션도 제공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임상연구부(CSU)의 박영주 상무는, "임상 시험은 최소 2년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CRA의 전문성과 역할에 달려 있다"며, "이번 교육 과정이 예비 CRA들에게 업계 경험을 제공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들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은 CRA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는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웹사이트([www.sanofi.co.kr](http://www.sanofi.co.kr))에 공지되어 있는 교육과정 참가 신청서(이름, 소속 학교, 연락처, 참가 동기 등)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이메일([sun.lee@sanofi.com](mailto:sun.lee@sanofi.com))로 제출하면 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본 교육 과정 참가비는 무료이다.



###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 (젠자임 코리아), 동물의약품 (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통합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